

임무는 당연함 속에서 빛난다

리더's 다이어리

전 부환
육군1101공병단 대위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중대장으로서 중대원들과 함께 지뢰제거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과정은 단순히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이 왜 존재하는지, 군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였다.

작전에 투입되기 전 우리는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하며 작전지형과 제거 대상을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했다. 이때 최적화된 수행방법을 구상하고, 작전 중에도 끊임없이 토의를 하면서 계획을 수정하며 더욱 완성도 높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이런 준비와 계획만으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묵묵히 믿고 따라 준 중대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처음이 두려웠던 봄에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찬 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의 추위에도 중대원들은 불평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해냈다. 우리는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며, 서로를 향한 신뢰와 팀워크를 바탕으로 하루하루 작전을 이어갔다. 그 결과 완전작전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쌓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군인으로서, 공병으로서 항상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군의 본질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을 넘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전문성을 키우고 언제든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는데 있다.

2025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맡은 모든 임무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이 당연함 속에서 진정한 군인의 자세가 빛난다고 생각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단순한 명분이 아니라 우리 군의 존재 이유 그 자체다.

새해에는 더욱 전문성을 갖춘, 자신감 있는 군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해 본다. 진심을 다해 주어진 임무에 임하고, 그에 걸맞은 역량을 키울 때 우리 군대는 국민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나와 우리 중대원들은 오늘도 땀 흘리고 준비한다.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군, 언제·어디서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군인. 이러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 본 지면에 게재된 글들은 본지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국방일보

발행인 채일 편집인 기국간

1964년 11월 16일 창간(일간) | 2010년 7월 1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337 | 인쇄인 장대환

독자관리 발송문의(구독신청 주소변경) 02-2079-3851~2 | 팩스 02-757-9309
인터넷 kookbang.dema.mil.kr | 04353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편집팀	편집 02-2079-3770-85	02-2079-3770-85
	교열 02-2079-3791-4	02-2079-3791-4
취재팀	취재 02-2079-3730-42	02-2079-3730-42
	사진 02-2079-3760-3	02-2079-3760-3
디지털콘텐츠팀	02-2079-3710-4	02-2079-3710-4
광고문의	02-2079-3124	02-2079-312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익명성', 이제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할 때

조명탄

심언철
법무법인 대화 변호사



2024년의 끝자락은 계엄과 탄핵,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으로 얼룩져 연말의 포근하고 따뜻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을사년 새해가 부디 밝고 희망찬 일로 가득 차길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특히 어린 아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생애 첫 가족여행 중 사고를 당한, 아기를 포함한 일가족의 소식은 듣기 어려울 만큼 가슴이 찢어졌다. 이런 비극을 대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속보로 이어지는 뉴스 중 하나가 '잘못 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악스러웠다. "무안공항 유가족들만 황재네요" "보상금을 받을 생각에 속으로는 싱글벙글할 듯"이라는 글과 말이 온라인에서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들 글에 '좋아요'를 눌러 동조하는 이도 다수라고 한다. 아무리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하고 어떻게 저런 글을 쓸 수 있을까. 경찰이 악플러들을 수사하고 추적하고 있다는 소식에 그나마 안도했다. 적어도 더 심한 말이 나돌긴 어려울 것이다. 경찰은 여객기 사고와 관련된 100여 건의 사이버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중 몇 명은 검거됐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이 같은 악플이 희생자·유가족에 관

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에 해당하거나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최대 7년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한다.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이므로 검거와 처벌이 쉽지 않아 수사에 애를 먹기 십상이다.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는 사법부도 처벌 범위와 수위를 확장해 일벌백계하려는 추세다. 최근 대법원은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이태원 사고 여성 사망자를 대상으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 메시지를 입력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메시지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20대 여성 희생자의 신체 부위 형상과 질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시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시신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시신을 오욕하거나 시간(屍姦)을 연상하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며 "추모·애도해야 할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과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인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저속·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창에 메시지를 입력해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음란물의 범위가 점점 좁아져 가는 최근 흐름과 다소 달라 보이는 법원의 판단인데, 판결문에서 우리 법원이 익명성에 숨어 비인간적인 악성댓글을 유포하는 행위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엄단의 의지를 갖고 있음이 엿보인다. 이러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노력이 세상을 좀 더 나아지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자유는 책임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유를 두려워한다."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이다. 지금 우리의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첫 군인가파트 준공 30년 만에 10층 고층아파트 시대 개막

History in 국방일보

<1995년 1월 10일자 1면>

군 간부들에게 가족의 거주지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가족의 생활공간은 그들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기에 국방부도 편안하고 안락한 '군인가파트'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 주거시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30여 년 전인 1995년 1월 10일자 국방일보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면에서는 육군통일대 공병부대가 '통일아파트 신축 준공식 및 입주식'을 거행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많은 이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 '군인가파트 준공'의 뉴스가 치에 관한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날 소개된 '통일아파트'는 군 아파트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군역사상 최초의 10층 고층아파트 시대를 열어줍니다. 기사에 따르면 '통일아파트' 이전의 모든 군아파트는 5층 이하였습니다.

'군 최초 현대식 고층건물'이란 부



제를 단 기사는 "군인가족 아파트가 첨단 현대식 고층화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시작합니다. 부대가 시공에 착수한 지 13개월 만에 완공된 '통일아파트'는 최초 계획된 5개 동 중 하나로, 총 100세대가 입주하게 된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2개 통로에 2개 엘리베이터 설치를 부가 설명할 만큼 당시로선 파격적인 규모의 첨단 시설로 간주됐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만큼 '신축 준공식 및 입주식'도 화려하게 진행됐습니다. 군 참모장을 비롯해 각급 지휘관과

공사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준공식 및 입주식'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교와 하사관이 같은 동에 입주해 간부 화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마무리할 만큼 통일아파트에 많은 관심이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 아파트의 역사적 관점에서 '통일아파트'의 위상은 뚜렷합니다. 1965년 3월 4일자 '전우'(국방일보의 전신) 지면에서 국내 1호 군인가파트 준공 소식을 전한 이후 약 30년 만에 고층아파트 시대 개막을 알렸습니

다. 이후 발전을 거듭한 군 아파트는 2005년 정부의 민간투자방식 사업을 도입해 품질과 규모를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군 아파트는 30년 단위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1965년 군 최초로 가족아파트를 준공했고, 1995년에는 첨단 고층아파트 시대를 열었습니다. 2025년은 또 다른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어떤 군 아파트 뉴스가 국방일보에 소개될지 작은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이영선 기자